## '94 제2검정소 최우수농장상 수상농장

# 동 림 종 돈

취재 : 추 용 진 기자

동림종돈 이동열사장의 모습

지난 3월 6일 본회 제2검정소에서 '94년 종돈능력검정 최우수 농장상을 수상한 동림종돈(대표 : 이동열, 경남 창원군 진전면 임곡리 54－6)은 백색계 전문종돈장으로 이동열사장이 직접 생산현장에 참여하여 생산성 극대화를 실현하는 농장으로 알려져 있다.

'89년부터 28두의 돼지를 가지고 종돈업을 시작하여 현재 모든 400여두의 규모와 4개의 자체 GP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림종돈은 지난 '92년 제2검정소 제21차 경매때, 능력검정소 사상 최고의 가격인 1천 5백만원에 낙찰을 본 초 수퍼종돈을 배출했고 '92년도 제1검정소 최우수농장상과 '93년도 제2검정소 우수농장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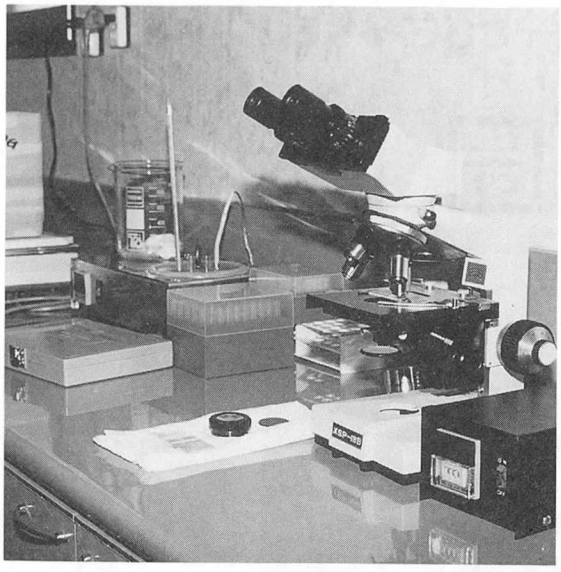
'94년도 제2검정소에 출품한 종돈중 챔피온돈 횟수 16회, 선발지수 218, 검정합격두수 137두, 검정합격률 755로서 종합·판정한 결과 294.5점을 획득하여 제2검정소 '94년 종돈능력검정 최우수 농장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 3년 연봉체계로 인력의 전문화와 능력화를 이룸

이처럼 만 6년동안 제1·2검정소를 합쳐 82회의 최우수검정돈을 탄생시킨 저력은 우수한 능력을 지닌 종돈들을 기초축군으로 확보하고 전문화와 능력화가 이루어진 인원이 정성으로 돼지를 관리한 결과라고 한다.

동림종돈은 이동열사장과 정종기분양사업소장, 생산과 직원 5명 그리고 여직원 1명으로 구성된 8명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인력난을 극복하고 또한, 3년 연봉체계로 소속감을 갖고 동림종돈을 이끌어 간다고 한다.

돈사를 들어선 순간 타농장과 달리 냄새가 없었고 각 단계별로 나눠진 돈방안에 있는 균일한 돼지들이 인상적이었는데 동림종돈은 철저한 기록으로 농장전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각 개체에 관한 기록에도 철저를 기해 관리에 빈틈이 없게 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불필요한 비용의 지



지난 3월부터 인공수정센터를 통해 정액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동림종돈의 자랑인 균일한 돈君들의 모습

출을 방지한다고 한다.

돈사는 톱밥을 이용한 준발효사로 되어 있고 돈사벽과 지붕에 우레탄폼을 쏴서 보온과 단열이 철저히 되며 완벽한 위생과 사양관리로 지난해의 혹서기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동림종돈은 믿을 수 있는 고능력의 종돈을 생산하기 위해 생후 21일령에 체중을 달아 능력검정소 농장 검정전에 자체적으로 능력을 평가, 능력이 떨어지면 도태시켜 나가고 있다.

## 동림종돈 인공수정센터 개설

정종기분양사업소장은 "완벽한 생산과 기초 유전자 개발에 정열을 쏟아야지만 앞으로의 개방에 대처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하며 "고능력돈을 확대·보급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3월부터 동림종존 인공수정센터를 통하여 정액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동림종돈 인공수정센터는 철저한 후대검정을 필한 고능력 수퇘지에서 채취하여 공급하고 균일성 높은 고능력 유전자를 고루 가지고 있어 A·I를 이용한 경제적인 개량효과가 있으며 또한 정액을 이용하는 농장의 철저한 기초돈군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고능력 유전자를 공급할 것이라 한다.

앞으로의 인공수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질문에 정종기소장은 "과거 A·I는 수태율과 산자수에만 급급한 종돈개량이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후대 검정을 통하여 당대보다는 후대의 능력 평가를 더욱 중요시 하여 기초유전자개발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일반 사양가들이 기록화와 주단위 관리가 토착화 되면 인공수정으로 많은 인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동림종돈은 작년 109kg 도달 평균일령이 153일이었으며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종돈을 조성하고 앞으로는 전국의 비육돈 농장 경영주나 농장장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과 교육을 실시하여 비육돈 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관리 능력 향상, 의식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정종기 소장은 "무분별한 돼지수입보다는 우리 자체의 계통조성된 돼지에 정열을 쏟아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